

성인여성을 위한 기본원형 연령층별 비교분석

최 미 성 · 조 훈 정(동신대학교 의류학과)

경제적 여유와 여가시간의 증가로 의복에 대해 다양하고 섬세한 욕구가 생기며, 연령이 증가하고 생활습관이 변함에 따라 체형의 변화가 두드러져 의복선택의 어려움을 낳는다. 고부가가치 있는 의복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의복제작의 기본이 되는 인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복원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성인여성의 어깨형태를 연령대별(20대, 30대, 40대)로 파악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기본원형을 비교 연구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여성복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먼저 원형의 제도방법에 따라 장촌식이 적용되는 신문화식 길원형(N), 단촌식이 적용되는 수평식 길원형(H) 및 절충식의 임원자식 길원형(L)의 서로 다른 3종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3종류의 원형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광목으로 실험의를 제작하였다. 착의실험을 위한 피험자는 연령별, 어깨유형별로 나누어 Rohrer 지수, Vervaeck 지수, 드롭치 및 어깨유형을 고려하여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람을 선택하였다. 평가 항목은 총 25개 항목으로 외관을 평가하는 항목과 인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전문적 평가단에 의한 착의평가 결과 원형제도방법에 따라 서로다른 결과가 나왔다. 전체적인 외관에 대해서는 L식 원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어깨부위의 안정감과 편안함에 대해서는 N식 원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L식 패턴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20대와 40대 보다는 30대 연령층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피험자가 착의실험을 위해 원형제도방법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제작된 실험의를 입고 평가한 결과 전체적인 외관에 대해서는 전문적 평가단의 결과와 달리 나타났다.